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금융 위험요인은 '외환 변동성'

한은 조사, 26.7% 1순위…다음은 높은 가계부채
중기 요인은 국내 경기·수도권 부동산시장 변수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0명 가운데 26.7%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두 번째로 1순위 응답률이 높은 요인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16.0%)이었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따지면, 대내 요인으로는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국내 경기 부진(32.0%) 등이 많이 거론됐다.

대외 요인은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과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이 꼽혔다.

위험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 요인을 시계별로 나누면 위험 요인에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통화·경제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을 단기인 1년 이내로 선정했다.

1년에서 3년까지인 중기 위험 요인에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국내 경기 부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은 실제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진단됐고,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대상자의 12.0%가 단기 시계(1년 이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단기 충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1년 전 같은 조사 당시의 비율(15.4%)보다 낮아졌다.

중기 시계(1~3년)에 금융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관측한 비율도 1년 사이 34.6%에서 24.0%로 급락했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외환·자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정책 당국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질서 있는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광주, 올해 수소차 106대 보급…수소승용차에 3100만원 보조금

시, 오늘부터 예산소진때까지
수소버스 3억5000만원 보조금

광주시가 수소자동차를 사면 구매보조금으로 3100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45억2100만원을 투입, 26일부터 친환경 수소차 10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수소승용차 104대와 수소버스 2대로, 광주시는 수소승용차 1대당 3100만원을, 수소버스 1대당 3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중 수소승용차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자·법인·단체이며, 지원 대수는 1인(개소) 당 1대이다.

접수는 광주지역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상담·구매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한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을 2년 내 말소하거나 타 시도로 판매(수출 말소는 5년 내)하는 경우는 차량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보조금 반납 의무는 회수 당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매매 시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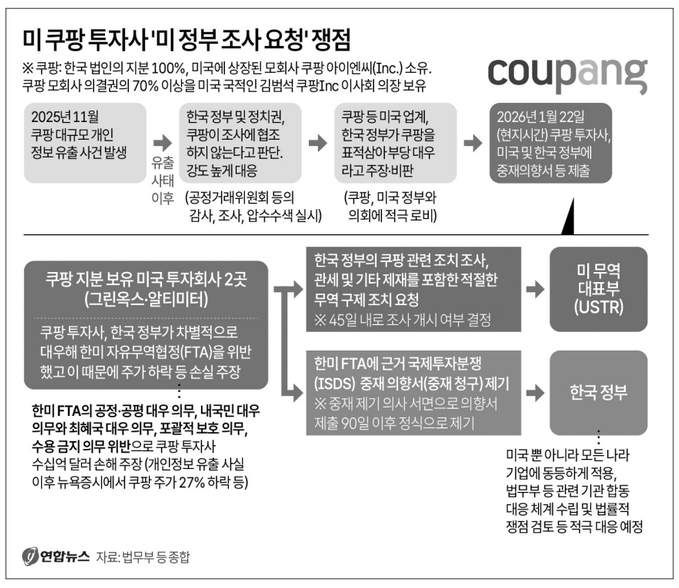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근 현대자동차 대리점 등 차량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673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481대, 수소버스 44대, 수소청소차 4대 등 수소차 1529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17.4t, 온실가스(CO_2) 2968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4만5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재 광주에는 진곡·동곡·임암·벽진·월출·장등·신촌·매월 등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국 정부, 쿠팡에 차별적 대우"

美투자사들, 중재의향서 보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 문제삼아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여부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린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금값 4900달러 돌파
은·백금도 사상 최고가

국제 금값이 그린란드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900달러를 넘었다. 은·백금 가격도 최고가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지난 23일 오전 10시45분 기준 온스당 4951.73달러를 나타냈다.

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온스당 4956.10달러를 기록했다.

금값은 작년 한 해에만 65% 올랐고 올해에도 약 달러, 저금리 기조,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 움직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계 귀금속 유통사 자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온스당 5000달러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고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한 예측치인 온스당 5187.79달러 이상의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은과 백금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은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3일 오전 10시45분 현재 온스당 98.8829달러를 기록해 전날 종가(96.2410달러) 대비 2.7% 뛰었고 사상 첫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 백금 현물 가격은 같은 시각 온스당 2668.37달러로 전날 종가 2637.55달러보다 1.2%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농어촌공사, 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ESG경영 실천 성과 인정…동반성장위원장 표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상생 협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어촌 구현, 국민과 함께 투명 소통경영 실현을 3대 ESG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155개 지구에서 159㎿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4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아울러 농어가에 84㎿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했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전남 김 수출 4억3200만달러 돌파 역대 최고

김 호조에 수산식품 수출도 5억4900만달러 신기록

전남 김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식품 수출 구조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해 김 수출액이 4억3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같은 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도 5억49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남 김 수출은 2021년 2억370만달러에서 2022년 1억9160만달러로 주춤했지만, 2023년 2억4940만달러, 2024년 3억6440만달러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뚜렷한 성장 궤적을 그리고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김 수출 7억달러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김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4235억원을 투입하는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

생산 기반 확충부터 가공 고도화, 수출 인프라 정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이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산 수산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산업 고도화,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달러, 수산식품 수출 1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코스피 4990대 마감…'천스닥'도 코앞으로

코스닥 4년만에 최고치

지난 23일 코스피가 4990대로 마감하고 코스닥도 2% 이상 급등해 '천스닥'(코스닥 1000)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p(0.76%) 오른 4990.07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인 4952.53을 다시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55p(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한때 5021.13까지 올라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코스피는 전날도 장 초반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지만 오름폭을 줄여 4950대에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45억원, 4911억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725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장 초반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은 매도를 나타냈지만 장중 정반대의 행보로 돌아섰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25억원 매도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정책 기대감에 급등해 전장보다 6.80p(0.70%) 오른 977.15로 출발하고 한때 998.32까지 올랐다.

지수는 전장보다 23.58p(2.43%) 오른 993.93에 장을 마치며 지난 2022년 1월 7일(995.16)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